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친밀감에 굶주린 세대: 그 원인과 성경적 해답

최모경

말결기: 왜 친밀감인가?

인간은 욕구와 동기를 갖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이에 행태심리학자 매슬로우는 동기 부여에 필요한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의 단계를 거쳐 최상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말한다. 이렇듯 사랑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심리학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심리학에서 거론하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친밀함에 대한 열망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친밀함”을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는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나 부부관계의 친밀함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이라 한다. 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알고 알려진다라는 의미로 친밀감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신시아 힐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 털어 놓아도 모두 이해하며 주시리라 굳게 믿는 것이라 했다. 즉,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낸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여 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친밀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음을 성경의 첫 장부터 보여준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존재가 있음을 내비쳤다. (창세기 1:26)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친밀함이 내포되어 있고 그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도 심겨졌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나 사랑을 표방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친밀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 기독교 잡지에서 고든 맥도널드는 현대 기독교 문화에서 대다수가 모든 면에서 건강한 친밀감에 굶주려 있으며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정욕에 눈을 돌린다고 개탄했다.

왜 이 상황까지 우리가 왔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원죄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를 다음과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같이 설명했다; “서로가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창세기 2장26절)로 친밀하고 연합된 존재가 아닌 낮설고 분리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프롬은 정신분석학자가 되기 전에 유대교의 랍비 집안에서 태어나 랍비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무신론자이다. 하지만, 프롬이 제기한 친밀감의 상실론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가 제시한 친밀감 부족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경과 우리의 현황에 비추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프롬의 제안과 성경의 해답을 비교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이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친밀감이 부족한 이유

1.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가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관계를 결정 짓는다며 자본주의 사회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는 형제애와는 다른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의미인 반면에 자본주의가 거론하는 정당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거리를 두고 그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오른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높은 생활 기준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문화에 살고 있다. 친밀감을 추구하는 행위는 시간을 따로 투자해야 하고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자본주의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그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학력, 경력 등의 스펙 관리는 자본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사랑보다는 다른 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제적 보상, 신분상승이 덕목이자 사회규범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공동번역, 요한1서 2:16) 자본주의가 미덕으로 삼는 것과 일치한다고 본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과의 친밀감에서 멀어지며 오히려 그 자체가 부당되고 지겨운 존재로 자리잡게 된다.

2. 가정의 붕괴와 부모 역할의 정체(停滯)

부모로부터 건강한 친밀감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2003년 166,000건의 정점을 찍은 이후로 2009년에는 124,000건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부모 가정은 2005년 통계로 1,370,000명에 육박했으며 통계조사에 들지 않은 조부모와 살고 있는 수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되고 증가 추세에 있다. 한부모나 조부모가 가정의 경제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홀로 감당하느라 자녀들과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은 친밀감을 배울 기회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건강한 친밀감을 보장할 수 없다.

프롬은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어머니는 애정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사랑을 주며 만족하는 것은 자기만족일 뿐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독립적인 존재로써 분리를 허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성인이 된 대학생이나 직장인 자녀들의 학부모가 학점관리, 취업

준비까지 부모가 직접 챙기는 것이 한 조사에서 50%이상임을 드러낼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프롬은 꼬집었다. 이런 세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써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경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은 잠시이며 하나님만이 지속적인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것(히브리서 12:10)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이성적인 믿음의 부재

프롬은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의 하나로 이성적인 믿음의 부재를 지목했는데 이성적인 믿음이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잡힌 확신이며 생산적인 지성과 감정의 활동에 근거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모험할 수 있는 용기와 고통과 실망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얻을 수 있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그리고 이성적인 믿음이 없으면 신에 대한 믿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경고한다. 믿음의 부재는 불안을 유발하며 목적 없이 전진만을 유도한다. 우리가 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의 뜻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물질적인 안위와 개성 시장에서의 성공을 향해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 믿음의 부재를 부추기는 유아적인 성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유아적인 성인이란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민족, 인종, 사회계층, 정치정당 등에 소속감을 느끼고 보호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 이성과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미완적 인간을 칭한다. 유아적 성인은 자신이 속한 무리의 우두머리의 권위에 정신적, 감정적으로 순응하며 자신만의 확신과 견해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방인에게 다가가갈 능력은 안되고 친한 사람하고만 지내는 수준으로 머무르다 보니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잣대가 아닌 친숙함의 잣대로 감정과 사고가 결정된다. 이를 경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셨던 것이다. (마태복음 10:35-37)

이로 인해 신에 대한 믿음은 경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도구로만 여기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위협을 무릅쓰기보다는 두려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한다.

4. 현실에 대한 인식부재

진정한 친밀감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쉽게 친밀감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것에 치중하게 된다. 프롬은 이를 가짜 사랑이라고 명명했고 고든 맥도널드는 정욕이라고 했다. 이 가짜 사랑이나 정욕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롬은 그 이유를 가짜 사랑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진단을 내렸다. 먼저 신경과민적 사랑은 연인 중 한 명이 부모의 형상에 얽매어서 상대방에게 부모에게서 받은 혹은 받고자 했던 사랑을 요구하며 집착하게 된다. 이상승배적 사랑은 승배자의 결핍과 절망의 표현이며 감상적인 사랑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의 환상 속에서의 경험을 중시한다. 투영적인 사랑은 본인의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상대방의 약점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가짜 친밀감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형태만큼 다양하지만 현실이나 자신의 문제점, 처지를 들여다 보기를 거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통스러운 자기성찰과 이해가 동반되는 진정한 친밀감대신 보다 쉬운 가짜 친밀감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욕구

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 사이의 전쟁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각인시킨다. (베드로전서 2:11, 갈라디아서 5:17)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친밀감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부릴 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다.

프롬의 제안: 사랑의 실천

프롬은 분리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은 한 집단의 일원으로 그 집단에 순응하려고 노력하거나 섹스나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창조활동을 함으로써 세상과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해결방법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벽은 없으며 오히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자신의 사회 관계에 있어서 관습적 변화가 아니라 극적 변화를 맞이한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사랑의 실천에는 훈련, 집중, 인내, 최대관심이 중요하며 혼자 지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며 특히 자신에게 민감할 것을 당부한다. 프롬의 실천 방안은 프롬이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기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하지만, 과연 인간은 스스로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

성경의 해답: 진정한 친밀감 회복

성경은 인간이 홀로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의 타락한 인간사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내린다. 친밀감 회복에 대한 해답은 나뭇잎으로 해결하고자 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장만하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제시한다 (창세기 3:21).

1.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알라고 거듭 강조하신다. (신명기 4:29-31, 열왕기상 16:10-11, 열왕기하 28:9, 시편 46:10, 이사야 55:6)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친밀함도 우리의 원형모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이다. 그 분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여자도 창조하셨다. (창세기 2:18)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선악과 사건 이전까지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연합된 존재로 여겼다. (창세기 2:23)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는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인 동시에 성부의 사역이었다.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언제나 성부와 함께 계셨다. 성부께서는 성자와 함께 성자 안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지만 성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성자는 자신을 세상을 위해 내어 주시는 고난을 겪으셨고, 성부는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 주시는 고난을 겪으신 것이다. 이와 같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에도 해당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때부터 그를 잉태하신 영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출생하셨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 그 분 안에 계셨고 그 분과 함께 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은 성부와 성령과의 친밀한 연합 관계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성부, 성자, 성령은 긴밀하게 서로의 뜻을 구하고 (요한복음 17:1, 로마서 8:26-27) 겸손히 순종하고 (빌립보서 2:8) 함께 모든 감정을 나누었다. (마가복음 1:11, 마태복음 26:39)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등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친밀함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앎으로써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혼자서 짝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상호관계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3:16, 요한1서 4:19)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하실 것이다. (야고보서 4:8)

국어사전에서 친밀함은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까운 사이를 넘어서 안에 거하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

2. 예수님이 정의하신 나를 알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창조물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갈라디아서 3:26)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가능성 (고린도전서 6:11, 히브리서 10:10)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한때 한국 드라마에서 한 남자가 여자 주인공에게 내 안에 네가 있다라는 대사로 대히트를 쳤던 것을 기억하는가? 예수님께서도 결혼식의 신부 (마태복음 25:1-10), 포도나무의 가지 (요한복음 15:5)등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필수라고 신시아 힐드는 지적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추구하여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간구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갈망에 한낱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피약벌에서 수고하고 있지 않는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정직하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눈 이후에 깨달은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친밀감을 추구하려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영적 전쟁에 항상 대비하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으로 친밀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 친밀함은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 관계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한 이에 대한 각성과 함께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진은 성화의 과정과 일치한다고 보

아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과정에 우리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 준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10-18)

팀 체스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강한 믿음은 성경, 기도, 공동체, 예배, 섬김, 고난, 소망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한다. 성화의 과정은 영적 전쟁과 함께 심화되어 가는 것이다. 끊임 없는 정체성 확인과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가까워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 모든 계명이 사랑에 귀착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선시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의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 중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하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기 앞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 돌보고, 함께 아파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고린도전서 12:25-26)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의 정체성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나서 가능한 것이며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13장을 통해 말한다. 테레사 수녀도 의지적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다. “우리는 손을 대는 것과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로 친절과 상냥함을 베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자세를 매우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의지적인 사랑(이성)과 친밀감(감정)의 균형이야말로 프롬이 거론했던 이성적인 믿음의 기초반석이 되어 두려움과 불신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기에(고린도전서 13:8) 우리에게 힘써 사랑하라(고린도전서 14:1)는 바울의 당부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 두서 없는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The Art of Love, Erich Fromm

Psychoanalysis & Religion, Erich Fromm

나도 변화될 수 있다, 팀 체스터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폴 밀러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시아 힐드

How to be a Christian without being religious, Fritz Ridenour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시아 힐드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2011년 3월 호, DNF 컬럼, 고든 맥도널드

출처: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자료, 2009.12.27

서울신문, 2010년 3월 26일, “헬리콥터 부모 늘었다”, 이민영 기자

Psychoanalysis & Religion, Erich Fromm, P84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2011년 3월 호, DNF 컬럼, 고든 맥도널드

크리스천투데이, 2006.3.18, 김명용 목사, 목회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4)”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시아 힐드, p14